

요 약

2018년 1/4분기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는 하락

- 2018년 1/4분기 서울의 「소비자태도지수」는 전 분기 대비 6.0p 하락
 - 1/4분기 서울의 「소비자태도지수」는 표준화지수 기준 97.3으로 전 분기보다 6.0p 하락하면서 3분기 연속 상승세가 멈추고 하락세로 반전
- 2018년 1/4분기 서울의 「현재생활형편지수」와 「미래생활형편지수」는 동반 하락
 - 「현재생활형편지수」는 1/4분기 들어 전 분기보다 2.1p 하락한 86.1, 「미래생활형편지수」는 전 분기보다 1.9p 하락한 96.0을 기록
 - 1년 후 가구의 생활형편이 악화될 것으로 본 주된 이유는 ‘가계소득 감소’가 34.7%로 가장 많고, 그다음은 ‘물가 상승’(20.7%), ‘경기 불황’(17.4%), ‘지출비용 증가 예정’(16.4%) 등의 순으로 조사
- 2018년 1/4분기 「현재소비지출지수」는 113.3으로 전 분기 대비 1.3p 소폭 상승했으나, 「미래소비지출지수」는 99.9로 전 분기보다 1.1p 하락
 - 품목별로 본 「미래소비지출지수」는 ‘식료품비’는 상승했지만, ‘교육비’, ‘교통·통신비’, ‘주거비’, ‘의류비’, ‘문화·오락비’ 등은 전 분기보다 하락

서울시민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생활비는 월평균 251.5만 원

- 서울시민은 주로 ‘65세 이상’을 노후로 인식
 - 서울시민이 노후로 생각하는 시기는 ‘65세 이상’이라는 응답 비율이 36.4%로 가장 많고, 그다음은 ‘70세 이상’(26.5%), ‘60세 이상’(25.3%) 등의 순
- 노후준비 여부를 조사한 결과 ‘노후준비 중’이 49.9%로 약 절반을 차지
 - 그다음은 ‘노후준비 못함’(28.9%), ‘준비할 예정’(14.6%), ‘준비를 다 함’(6.5%) 등의 순으로 조사

- 서울시민의 노후생활자금 준비 방식은 주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의존
 - 노후생활자금 준비 방식의 응답 결과를 보면, 1순위 및 1~2순위 합계 모두 ‘공적연금’이 1위이고, 그다음은 ‘사적연금’으로 조사
- 서울시민은 노후 생활비(부부기준)로 월평균 251.5만 원이 적정하다고 인식
 - 구간별 비율을 보면, ‘200만~300만 원 미만’이 46.6%로 가장 많고, 그다음은 ‘300만 ~400만 원 미만’ 27.4%, ‘100만~200만 원 미만’ 16.2% 등의 순으로 조사
 - 연령별로 본 월평균 적정 노후생활비는 30대 이하가 267.7만 원으로 가장 많고, 그다음은 40대(259.1만 원), 50대(245.3만 원), 60대(230.4만 원) 등의 순으로 응답
- 노후생활 준비가 잘 안 되는 주된 이유는 ‘주택구입 및 부채상환’
 - 1순위 기준으로 노후생활 준비가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‘주택구입 및 부채상환 때문’이 43.1%로 가장 많고, 그다음은 ‘자녀 교육비 및 양육비 지출이 많아서’(21.8%), ‘아직 노후준비에 관심이 없어서’(12.4%) 등의 순으로 조사
- 서울시민은 노후대책으로 ‘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지원정책’이 가장 시급하다고 인식
 - 가장 시급한 노후대책으로 ‘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지원정책’이 응답 비율 40%를 기록해 가장 높게 조사

1/4분기 4대 도심제조업 업황은 전 분기보다 부진

-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2018년 3월 「체감경기 BSI」는 77.8로 2017년 11월 이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
-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3월 「체감경기 BSI」는 전월 대비 20.1p, 전년 동월보다 2.7p 상승
- 「체감경기 BSI」가 여전히 기준치 100을 밑돌고 있어 경기를 좋게 보는 소상공인보다 어렵다고 보는 소상공인이 더 많은 실정
- 그러나 1/4분기 4대 도심제조업 업황은 전반적으로 전 분기보다 부진

- 귀금속제조업 업황은 전 분기(기준=100) 대비 90 수준이고, 수출은 나아졌지만 내수가 전 분기와 비슷하거나 안 좋은 상태
- 기계제조업과 인쇄산업의 업황은 전 분기(기준=100) 대비 각각 80, 60~70 수준
- 의류·봉제 업황은 해외 물량 축소 등으로 전 분기(기준=100) 대비 70 수준

최저임금 인상 영향은 업종별로 차별화

- 인쇄업체는 최저임금이 더 오를 경우 경영난으로 인력 감축이 발생할 가능성
- 기계업체는 인건비 자체가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 영향이 적은 편
- 의류·봉제업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 확대
- 귀금속업체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은 기술자보다 단순 노무인력에 더 큰 영향
- 편의점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다점포 운영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으며, 주로 아르바이트생을 줄이는 경향

1/4분기 명동·동대문관광특구의 매출은 전 분기 대비 소폭 하락하거나 상승

- 1/4분기 명동관광특구 매출은 관광 비수기, 화장품업 매출 부진 등으로 전 분기(기준=100) 대비 90~95 수준, 전년 동기(기준=100) 대비 85~90 수준
- 1/4분기 동대문관광특구 매출은 전 분기(기준=100) 대비 110~115 수준이지만, 전년 동기(기준=100) 대비로는 95 수준에 불과
- 인사동 문화지구는 주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인사동 인지도가 다소 하락하고, 인사동이 '소비 공간'보다 '거쳐 가는 공간'으로 변화되면서 상권 매출 부진
- 한편 3월 들어 봄철 관광객 증가, 한한령 완화 분위기,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한국의 인지도 상승에 따라 방문객이 서서히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존재
- 관광업계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 압력이 높아 인건비 줄이기에 나서는 경향